

동절기 화재예방과 진화대책에 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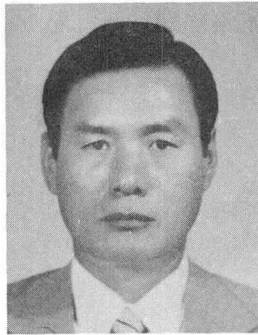
1. 서론

인간이 불을 사용한 이래 늘 그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한편으로는 불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가 그 민족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환경속에서는 상시 각종 재해가 뒤따르게 마련인데 이 재해는 크게 자연적인 재해와 인위적인 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전자를 일컬어 천재지변이라고 부르며 풍수해, 지진, 낙뢰 등이 여기에 속하고, 후자는 소위 인위적인 재해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화재가 대표적이다.

본고에서는 인위적 재해인 화재를 동절기에 어떻게 예방하고 방호하는지에 대해 금년도 월동기 소방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최재홍
<내무부 예방과장>

2. 동절기 화재발생 분석

최근 화재발생 추세는 87년을 정점으로 1만여건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중에 발생한 화재사고는 전체의 42%인 4천 2백15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1천4백74명 발생에 사망 3백 21명 부상 1천1백53명으로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재산피해는

1백47억원 상당의 손실로 집계되었다.<표1>

화재원인별로는 전기, 유류, 불량난, 담배, 난로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고<표2> 발생장소별로는 주택, 작업장, 점포, 음식점, 사업장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표3>

3. 화재예방대책

(1) 범국민 화재예방운동 전개
정부는 매년 11월 한달 동안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 범국민적 화재예방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동절기에 대비한 화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11월 1일은 도, 시, 군별로 불조심 결의대회를 갖고 시가지 및 화재취약지 등에 대한 불조심 가두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11월 13일은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초·중학생 자기가정 방화점검일로 정하여 자기집의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특히 가정용 소화기가 없는 가구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비치하도록 지도하였고,

-11월 21일은 직장단위 방화점검 정비의 날로 지정, 3만7천여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범훈련을 가졌다.

이밖에 1일 소방서장제, 불조심 웅변 및 사생대회, 화재예방 계몽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전개하여 범국민 화재예방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2) 대형화재 취약대상의

안전관리

전국의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호텔, 시장 등 총 3천7백14개소가 있으며, 이들 대상에서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공히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현저한 대상이므로 평소 자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동절기 소방대책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소방시설의 기능유지 관리를 위해 1일 방화점검 및 시설주 책임점검 확인

둘째, 화기취급장소에는 가연물을 제거하고 상시 소화기구 등 비치

세째, 스프링클러설비 등 노출된 소화설비의 배관이 동결·동파되지 않도록 사전보온 조치

네째, 자체 경비원으로 하여금 취약지 심야소방순찰 강화

기타 소방관서에서의 간부책임대상지정 운영으로 혹한기 1일 1회이상, 평상시 주1회이상 현지 확인지도를 통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업소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계도하고 있고 특히 시설주 및 방화관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부단히 실시하여 자율적인 예방체제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에 따른 지도 및 단속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화재는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취급 부주의에 기인된 것으로서 정부에서는 이를 극력 예방코자 84년 9월 3일 시·군 화재예방조례준칙을 개정하여 호텔, 시장, 상가, 백화점, 유흥음식점 및 지하다방 등 6개 업종에 있어서는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반시에는 1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현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고, 동력자원부에서도 86년부터 생산 시판되는 모든 석유난로에 대하여는 전도시에 자동소화되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석유난로를 공급하도록 규제하기에 이르러 석유난로기구에 의한 화재사고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월동기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1단계로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를 계몽기간으로 정하여 각종 보도매체 및 유인물을 제작해 계도하였고, 이어서 2단계로 11월이후부터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있다.

4. 진화대책

(1) 소방장비의 관리 및 신고 체제 확립

소방의 생명은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기진화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예컨대 소방차가 출동중에 고장으로 도로상에서 정지하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표 1〉 화재 발생 총량

구분 대비	건 수	인 명 피 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 망	부 상	
'87전체화재	10,474	1,474	321	1,153	14,780,959
'87동절기화재	4,215	578	134	444	6,753,845
발생률(%)	42	39	42	39	46

〈표 2〉 발생 원인별 건수

원인별 대비	계	전 기	유류	불장난	담 배	난 로	기 타
'87동절기화재	4,215	1,215	326	493	468	335	1,388
발생률(%)	42	38	44	44	40	71	40

〈표 3〉 발생 처종별 건수

처종별 대 비	계	아파트 주 택	공 장 작업장	점포	음식점	사업장	기타
'87동절기화재	4,215	1,270	754	373	220	126	1,472
발생률(%)	42	41	41	47	42	43	41

이러한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기 위해 각 소방관서에서는 일일, 주간 및 월간 정비계획에 의거 철저하게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혹한기에 대비한 차고의 보온조치는 물론 스노우타이어, 체인,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의 월동장구를 확보하여 출동에 임하고 있다. 또한 화재현장에 신속 출동하기 위해서는 지령실에서의 화재상황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신고자의 정확한 제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고자는 화재발생장소의 위치, 목표물, 건물규모 및 용도, 발생부위 등을 침착하게 알려 진화작업에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출동시킬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므로 신속 정확한 신고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 인명구조 및 출동태세 확립
화재 장소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로 인명 구조이다.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사망감과 아울러 평소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서는 인명구조대를 편성, 1일4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훈련내용을 보면 실내진입, 내연내열훈련, 인명검색 및 구조훈련, 취약건물의 옥내외 구조과약 등 현지 적응훈련을 부단히 연마하고 있다.

한편, 화재시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반복훈련이 중요하다. 먼저 불시에 주간 20초, 야간 30초 이내에 각각 차고를 탈출하는 민첩성이 요구되는 출동훈련을



실시하는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교통난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기동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초기진화는 어렵게 된다.

현지 가상훈련은 시장, 호텔, 공장 등 대형화재 취약건물에 대한 차량부서위치 및 옥내진입, 소화전 점령, 기타 인명구조 등의 종합적인 훈련으로 부여받은 임무를 얼마나 숙지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가를 점검하는 훈련인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유사시에 당황하지 않고 적응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 하겠다.

(3) 소방용 수리시설의 정비관리

물은 화재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므로 평소 급수탑, 소화전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즉, 고장 개소가 없는지를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개·보수하며 동파되지 않도록 만반의 보온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인간은 태고적 부터 불을 중요시하면서 소중히 다루어 왔고 불을 잘 지배한 민족일수록 흔히들 선진국이라 일컬어 왔다. 그만큼 불이란 일상 생활에 이로움을 주는 반면 잘못 다루면 큰 재앙을 가져오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의 생활환경 주변에서 불을 주의깊게 다루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동절기에는 각종 화기사용의 증대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계절임을 감안할 때 개개인의 안전의식과 불조심 생활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